

노인에서 성대 용종의 후두 미세수술 후 음향지표 변화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
 이상혁 · 최정임* · 여장옥 · 이창희 · 이선욱 · 진성민

목 적

성대 용종은 성대에서 발생하는 양성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병변으로 이에 대한 치료로는 약물치료, 음성치료, 후두 미세수술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. 성대 양성 병변에 대한 후두 미세수술 후 다양한 음향지표들이 유의하게 개선되어 후두 미세수술이 환자의 음성 호전에 효과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. 그러나 노인의 경우 성대 병변에 의한 음성변화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후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음성의 약화, 떨림, 쉼, 불안정성 등의 변화도 가지게 된다. 본 연구에서는 성대 용종으로 후두 미세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6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수술 전과 후의 음향지표 개선 정도를 비교하여 노인에서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방 법

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과거 경부에 수술 받은 기왕력이 없고, 후두 내 다른 병변이 없으며 성대 자유연의 일측에 존재하는 성대 용종으로 후두 미세수술을 시행 받은 1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 중 60세 이하는 105명, 60세 이상은 23명 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4.9세(15~75세)였다. 수술 전과 수술 후

4주에 음향 검사 및 공기역학 검사를 시행하여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.

결 과

총 128명의 환자에서 후두 미세수술 시행 후 Jitter, Shimmer, HNR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($p=0.000$). 60세 이상 군에서 수술 후 음향지표의 개선 정도가 60세 이하에 비하여 덜 하였지만, Jitter, Shimmer, HNR가 두 군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($p=0.000$), 호전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. 공기역학 검사상 최대 발생 지속 시간도 두 군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나이에 따른 호전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.

결 론

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노화에 따른 후두의 퇴행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후두 미세수술 후 유의한 음향지표의 개선을 보였으며, 젊은 층과 비교하여도 개선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노인에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음성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.